



제주 고위험 산모 응급의료 ‘붕괴 수준’

지난 3일 임신 24주 산모, 헬기로 부산 긴급 이송
최근 2년 응급분만 10건 중 1건 비상상황 도외행
“산모·소아 응급 의료 인프라 턱없이 부족한 때문”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추진하는 제주대학교병원까지 의사 부족으로 고위험 산모의 진료를 다른 지방으로 넘기면서 제주지역 고위험 산모 응급의료체계가 붕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제주대병원 은 진료 가능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양막파열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임신 24주 20대 산모의 헬기 이송을 요청해 부산지역으로 이송했다. 지난 5월에는 하루에만 2건의 이송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그달 30일 조기 출산 위험이 있는 임신 30주차 30대 산모가 수술 가능한 병원이 없어 소방헬기로 부산지역 병원으로 이송됐고 19주차 쌍둥이 30대 산모는 조산 위험 상태에도 수술 가능 병원이 없어 대전지역으로

이송됐다.

이처럼 헬기를 이용한 고위험 산모의 타 시도 이송 사례는 2022년 2건, 2023년 9건, 2024년 9건, 2025년에는 18건으로 갑질 증가했고 올해도 현재까지 벌써 10건에 이르는 등 매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4년부터 2026년 5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총 346건의 응급분만 가운데 34건 (9.9%)은 소방헬기를 이용해 도외 병원으로 이송됐다. 도외 이송 사유 대부분은 신생아 중환자실 부족과 수술 불가 등으로, 고위험 산모에 대한 응급의료 체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도외 이송 헬기를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추진하는 제주대학교병원조차 신생아중환자



3일 소방헬기를 타고 부산으로 이송되고 있는 산모.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미숙아 등이 태어날 경우 산모뿐만 아니라 일부 신생아도 도외 이송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의료계에서는 제주도가 24시간 지역 거점 분만 체계 구축과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인력 확충, 의료진 보호제도 도입, 분만수가 현실화 등을 통해 산모와 신생아가 어디에 살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료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위성곤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중증의료 역량 강화, 필수의료 및 지역격차 해소, 건강주치의 중심 예방의료 확대 등을 포함한 ‘제주형 의료자치 모델 구축’을 공약한 바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대학교, 양덕순 총장표 첫 조직개편

부총장 체제 정비… 비서실·혁신부처장 신설

4·3학 연구소, 직할기구 승격

제주대학교가 양덕순 총장 취임 이후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기존 부총장 체제를 정비하고 비서실과 혁신부처장을 신설하며 새로운 진용을 갖췄다.

제주대는 지난달 29일자로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조직을 개편했다고 4일 밝혔다. 양 총장의 20대 전략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첫 조직 개편이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부총장 체제의 재정립’이다. 사라캠퍼스부총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총장의 명칭을 바꾸고 역할을 강화했다.

기존 교육부총장은 교무처장을 겸임하는 ‘교학부총장’으로 교육 혁신과 학사 운영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산학연구부총장은 대학원장을 겸임하는 ‘연구혁신부총장’이라는 새 이름으로 대학 연구 경쟁력, 산학협력 고도화 등의 역할을 맡는다. 교학부총장에는 손원근 교수(수의과대학 수의학과)가, 연구

혁신부총장에는 송관정 교수(생명자원과학대학 스마트팜학부)가 임명됐다.

총장 직속 기구인 ‘비서실’도 신설됐다. 기존 총무과 비서 업무와 대외협력홍보실을 통합한 조직으로, 전임교원이 실장을 맡는다. 첫 비서실장에는 강동호 교수(교육대학원 교육학과)가 이름을 올렸다.

기획처 부처장 자리는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기획부처장과 혁신부처장으로, 각각 이소영 교수(사범대학 사회교육과)와 강재혁 교수(공과대학 원자력공학과)가 맡는다. 특히 신설된 혁신부처장은 ‘글로벌대학 30’,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대형 국책 재정지원 사업을 전담한다.

양 총장의 주요 공약인 ‘4·3학 연구소’는 대학 직할 기구로 승격됐다. 기존 탐라문화연구원 산하의 4·3연구센터가 분리·독립하면서다. 연구소는 4·3학 이론 확립과 제주형 평화·인권 교육 확대 등에 역할을 하게 된다.

김지은기자

“에월포레스트 환경영향평가안 재심의하라”

제주녹색당 사업 철회 촉구

제주녹색당이 에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안 재심의와 사업 철회를 요구했다.

녹색당은 4일 성명을 통해 “해당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해당 사업 계획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녹색당은 “해당 사업은 제주의 청정 환경을 파괴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해하는 치명적인 문

제점들을 안고 있다”며 “사업자가 제출한 각종 보완 계획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처방에 불과하고 제주도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제주의 물 부족 사태 가속화 ▷오수 유입 시 지하수·토양 오염 우려 ▷제주 2035 탄소중립 기초 역행 ▷법정보호종 서식처 파괴·생태계 훼손 ▷영세 숙박업소 피해 등을 주장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주별빛누리공원, 12일 ‘별뿔별 우주쇼’ 관측회

한여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페르세우스 유성우의 장관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별빛누리공원은 오는 12일 오후 10시부터 자정까지 별빛누리공원 태양계 광장에서 ‘2026 여름 밤의 별뿔별 우주쇼 관측회’를 개

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원 측에 따르면 이번 페르세우스 유성우 관측 행사는 달빛이 없는 최적의 관측 기회로, 태양계 광장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맨눈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뿔별 관측을 할 수 있다.

백금탁기자

암모니아 누출 사망사고
안전관리 책임자 집행유예

지난해 한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 누출로 작업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지 판사)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영어조합법인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2월 26일 제주시 한 수산물 냉동 가공업장에서 암모니아 가스가 누출돼 작업 중이던 70대 업체 대표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업장 가스 안전관리 책임자인 A씨는 냉동시설 암모니아 가스 밸브가 부품 부식으로 완전히 폐쇄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교체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위영석기자



보트 위에서 즐기는 낚시 4일 제주시 함덕리 앞바다에서 가족단위 관광객이 보트를 타고 낚시를 즐기고 있다.

강희만 기자

폐기물 처리업체 압축기 끼임사고 50대 숨져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50대 남성이 작업 도중 고철 압축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4시32분쯤 제주시

한 폐기물 처리업체 고철 압축기에 작업자의 상반신이 끼었다는 신고가 119를 통해 접수됐다.

소방 당국은 경찰과 공조해 오후 4시45분쯤 구급대를 사고 현장에

출동했지만, 이미 작업자가 외상성 심정지로 숨진 상태여서 추가적인 응급조치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위영석기자 yswi1968@ihalla.com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치,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채권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해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명품 브랜드 大賞
KOREA PRESTIGE BRAND AWARDS 2022